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식
민족 복음화
선교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나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민국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중현교회

THE WEEKLY CHŌONG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광현 편집:양재웅

선교!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 2:15)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20일부터 해외 선교팀이 집중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선교지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고, 현재에도 복음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롬 15:16) 이는 주님의 은총이 없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아프리카니스탄에서 일어난 일일 남지 사건으로 현재 해외 선교가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팀과 팀원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며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행 20:24)

온 땅 열방을 향한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매일 매순간 기도로 후원하십시오. (엡 6:18) 특별히 물질의 후원도 아끼지 마십시오. (눅 5:14)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교비 지출을 줄이거나 심지어 선교비 항목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재정의 많은 부분을 선교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출되는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교현금이 줄고 있습니다. 혹시 선교에 대한 믿음(행 18)이 식거나 주님의 말씀(막 16:15)에 안일해져 가는 현상은 아닐까요? "그러나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버려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현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눅 21:2)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현금에 믿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눅 12:21)



2007년 하반기 장학성 명단 - 본지 7면 참조

크리스마스 메시지③

아직도 세미한 음성 (이사야 11:1~10)

사람들 만나와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이후에 살았던 바울이 있다. (딤후 1:15)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멀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록한 것이다. (사 9:2) 그때는 이스라엘이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다. 이는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치 출장하였던 나무들이 그루터기만 남고 다 찍혀 버려진 것과 같은 모습이다. (사 6:13) 이러한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으로부터 소망으로, 징벌로부터 구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있다. (사 11:10)

상 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상처가 있다. 그것은 그루터기의 상징이다. 그루터기는 절망의 표징이다. 한때 막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략군에 의해 처절한 고통을 받았다. (렘 39:6~8)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박과 여말과 함께 율타리 안에서 살던 자녀들이 갈라지게 되고 희망까지도 빼앗긴 모습이다.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것은 오직 과거의 기억이며 이제는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비참한 현실만 있을 뿐이다. 이혼 법정에서 파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그 모습 전부를 이사야는 보았다. 여러분 자신의 삶은 어떠한가? 인간관계, 건강, 사업 등 행복의 꿈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의 우리도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행 복 이사야의 환상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크리스마스의 환상은 초라하게 남은 한 그루터기를 기쁨의 상징 곧 그 뿌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약속하여 주셨다. (대상 17:12~15)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앗수르, 바벨론 등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무너지게 될 때에도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붙들었다. (단 14:24) 이것은 안전성을 나타내었다. (골 2:7) 근본 또는 원인으로 말씀하신다. (딤후 1:8) 본초 또는 부도를 말씀하신다. (단 11:7)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 (사 11:10; 계 5:5) 이사야는 소망의 뿌리를 보며 새끼가 나와 자라는 생명의 근원을 보고 있다. 즉 인간 존재,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인간에게 "생명력 있는 뿌리"가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 안에는 형과 기조와 안전성 그리고 성경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만족 못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사 53:2,3) 그리스도는 매우 평범한 가난한 한 가정에 태어났다. 역경 속에서 자라 이 땅 위에서는 불과 3년의 사역이 고작이었다. 그를 따르던 무리들의 숫자도 그리 많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권세있는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최잔하여 완전히 없어져 버리지는 대신 그의 이름은 점점 더 빛을 발하여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역사의 페이지를 채우고 있다.

소 망 크리스마스는 그루터기만 남아있기에 한 쪽 부분은 상처이며 아픔이다. 동시에 뿌리가 있기에 행복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여 준다. 이 메시아 안에서는 고침을 받지 못할 상처가 없고 회복되지 못할 것이 없다. 이스라엘의 그루터기로부터 새 싹이 나와 한 그루의 나무가 되었으나 사람들은 이를 잘라 험한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에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구원의 뿌리로 삼으셨고 예수를 죽음에서부터 살려 내시고 승리케 하셨다. (딤후 3:16) 우리들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주 약하게만 보이는 뿌리를 통하여 크리스마스를 둘러싼 모든 사건들이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흠하여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외친다. (요 3:30)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빌 2:6~8) 고통과 투쟁으로 인하여 이제 여러분께 남은 것이 죄의 그루터기뿐인가! 이사야는 성령의 역사로 크리스마스가 항상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을 보았다. 그리스도 안에는 추하고, 천대받고 버려진 자들에게 새 생명과 기쁨과 시작이 있다. (고후 5:17) 크리스마스에겐 아픔과 행복이 함께 있다. 그것은 덩그러니 남아있는 보기 흉한 그루터기일진대 그 안에는 환경, 조건, 지식, 부와 영화가 찾아낼 수 없는 생명력 있는 진리의 뿌리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은총의 자녀들에게 내려진다. 여러분의 뿌리가 무엇으로 자라날는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제 우리의 삶에 있는 크리스마스에 물을 주고 가꾸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뿌리로부터 새 생명이 넘쳐나기를 기도하자. (갈 2:20) 아멘.

WHERE ARE ALL THE LEADERS?

(11) And He gave some as apostles, and some as prophets, and some as evangelists, and some as pastors and teachers, (12) for the equipp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service, to the building up of the body of Christ (Ephesians 4:11,12)

There exists a wonderful harmony between heaven and earth. God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work together and produce all different kinds of gifts for believers. These special gift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church. When you go to church you find pastors, elders, deacons, deaconesses, teachers, missionaries, and many other positions, but where are the real workers? Where are the real evangelists? In today's churches there are actually very few spiritual leaders. The great impact of true spiritual leaders for Christ looks historical. In this 21st century, church gatherings focus on drama, humor, and entertainment rather than soul winning. It is hard to find the powerful ministries of the early church in today's churches. It is hard to find a Peter, Paul, Mary Magdalene, John, Stephen, and Joseph from Arimathea. So, how can we get strong spiritual leaders back into the church?

First and foremost, we need to pray for real spiritual leaders. Jesus told His disciples,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Therefore beseech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workers into His harvest." (Mt. 9:37,38) Where are our heavenly workers? Our church places a great deal of money toward academic scholarships, but how many of them are good leaders in the church? Where are all the students who received scholarship funds from Choong Hyun? After college, most of them leave this church and go into the world for success. Their hearts are in the world, not in Christ. Our young people prefer to become doctors, lawyers, politicians, and business people rather than God's servants. In this church, many workers have lost the meaning of their duties. They have forgotten or ignore the Word, and as such their eyes focus on the physical, not the spiritual aspects of the body of Christ. They are depressed and lack motivation. We need workers interested in souls. If the church really desires spiritual leaders, then we must pray for them.

Second, we need to prepare for real spiritual leaders. When

God sends His gifted people to our church, we need to receive them with welcoming hearts. Our church must be widely open to the Holy Spirit or else we will miss and ultimately lose His blessings. Many leaders within the church today have become discouraged, and have not prepared for the coming of spiritual leaders. Who among us is looking for spiritual leaders? Who is arranging prayer meetings, visitations, and telephone committees to help facilitate spiritual leaders? Without repentance, there is no real joy or witness for Jesus Christ. If the church really desires spiritual leaders, then we must prepare for them.

Third, we need to care for spiritual leaders. We do not spend enough time thinking about the needs of church workers. Sometimes churches misuse their church workers financially. They neglect their material needs, like housing, cars, and insurance. They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costs of maintaining a home and raising a family. The church budget should reflect the needs of spiritual leaders. If we want true spiritual leaders to become a part of our rich team, then we must properly care for them.

My dear friend, today's Bible verse tells us that God gives spiritual leaders to the church, but we ignore them. Their purpose is to equip believers, build up the church, "until we all attain to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to a mature man, 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which belongs to the fullness of Christ." (v. 13) Let's work together and raise church leaders. Look around this church; do you see many strong spiritual leaders? Look at the young people, are they growing here? Look at the old people, are they concerned? I need to ask you a few simple questions. Are you saved because of Jesus Christ? He gave His life for you. Do you really love Him? Are you willing to build His church? I hope this church will be filled with many different spiritual leaders. We have to pray and prepare for spiritual leaders, and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m. Can you do that? 

다음 주일 설교

영적 지도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11)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11,12)**



김성판 목사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놀라운 조화를 이룹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협력해서 일하시며 신자들에게 각양의 은사들을 나눠 주십니다. 이 특별한 은사들은 교회가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에 가면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선교사 등 매우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일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는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이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은 이제 역사책이나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21세기의 교회는 영혼을 얻는 것보다 드라마, 유머, 오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 초대교회와 같이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베드로, 바울, 막달라 마리아, 요한, 스데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우선, 우리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마 9:37,38) 우리의 천국 일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많은 재정을 장학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 가운데 몇 명이나 주님의 교회를 위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충현교회의 장학금을 받은 그 많은 학생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교회를 떠나 성공하기 위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는 의사, 변호사, 정치가, 사업가가 되기를 더 원합니다. 자신들이 행해야 할 사명의 참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의 눈은 그리스도의 몸의 영적인 안목이 아니라 현실적인 성공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의기소침하거나 의욕을 상실합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 지도자들을 원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맞을 준비

두 번째, 우리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주실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는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주시는 축복들을 놓치거나 결구에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많은 지도자들이 낙심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영적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까? 누가 영적 지도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기도 모임과 심방 일정, 전화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회개 없이는 진정한 기쁨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 지도자들을 원한다면 이에 앞서 그들을 맞을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섬김

세 번째,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일꾼들의 필요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일꾼들에게 재정적으로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 일꾼들의 물질적인 필요 즉, 집이나 차량, 보험 등과 같은 부분을 소홀히 생각합니다. 가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드는 비용을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참된 영적 지도자들이 진정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그들에 대한 온전한 섬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13절)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믿음으로 교회의 일꾼들을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영적인 지도자들이 눈에 많이 됩니까?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몇 가지 간단한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이 헌신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로 넘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

요한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복음이다.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매우 생생하게 담고 있다. 1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매우 유사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말씀과 기적,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오히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결론인 20장은 매우 극적인 반전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조차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특히 제자들은 3년간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시자 모두 흩어졌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수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모든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제자들은 철저히 실패했다. 이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고 가장 의심 많던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손과 허리의 상처를 확인하였다.(요 20:27) 자신의 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확인한 도마는 예수님께 고백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시이다”(요 20:28)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의 진리이다.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다시한 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힌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난다. 그리고 이어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놀라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거의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성령의 증인이 된 베드로의 모습은 단순히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다. 그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 비밀은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21장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요 21:23) 요한의 어머니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높은 자리를 청한 적도 있다.(마 20:21)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은 베드로를 세워주고 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여 요한은 베드로의 사역을 짐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후에, 초대교회 부흥의 현상에서 요한은 항상 베드로와 함께 했다.(행 3:1)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했다. 자신이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21장은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띠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잠 3: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소망하는 13교구의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며 은혜로운 교구를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3교구는 감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273세대 636명의 성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5개 지역, 21개 구역, 7개 전도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장로 7명, 안수집사 6명, 권사 27명을 비롯한 전 교구 성도들이 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제1교육관 1층 영아부실에서 교구모임을 갖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마 16:18)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과 찬양으로 항상 은혜받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족 소개를 통하여 서로를 깊이있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그 가운데서 서로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교구의 모든 일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함은 은혜로운 교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가 교구를 통해서 주님의 물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고 견고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비해 많은 교구 식구들이 교구모임과 금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8. 8.)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요한복음 21:1~8)



에도 지금까지 배태량 어부 베드로는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그는 순종하였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다.(눅 5:5,10)

3년 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 그곳에 와 계셨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요 21:4) 밤마로 가던 두 제자(눅 24:16)의 눈이 가워져서 함께 동행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듯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몰라봤다. 그 때 예수님은 3년 전처럼 말씀하셨다.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요 21:5) “고기가 없다”라는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자 그리하면 얻으리라”(요 21:6) 이어서 3년 전의 기적은 또 다시 일어났다.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요 21:11)를 잡은 것이다. 요한(요 13:23)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께로 뛰어갔다.(요 21:7) 이전에 그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5:8) 이제 예수님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눅 5:10)고 말씀하셨다. 지금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하여 지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주셨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없다. 이것은 베드로의 삶이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진실으로 회개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주 은총 임은 종들이 주 앞에 었도나이다. 주 예수 복을 전하러 날 보내주소서.”(찬 254장) 아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13교구

요한양심회를 비롯한 모든 공예배와 집회에 참석하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교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남영구역 화성회를 통해서 교구 안에서, 지역에서 각 가정에서 남성도들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교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교구 식구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 6:14)라는 사도 바울의 신앙고백에 기초한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애쓰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윈주의, 자유주의라는 미명 하에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흐려져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아로 목상하면서(시 1:1)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 몸예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하는 교구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키기까지 자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13교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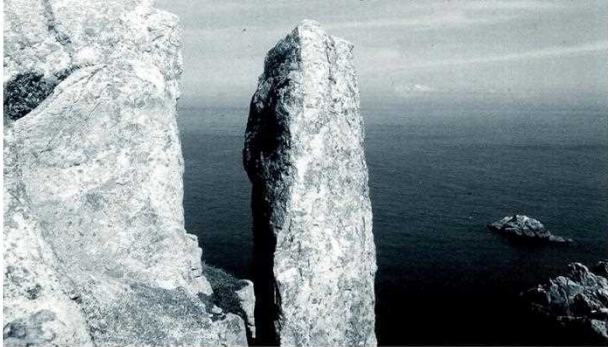


박성태(대장로, 13교구장)

예수님이 최고!

20, 17, 21교구 연합팀

- ✦ 험한 비포장 도로와 산을 넘어 가던 중에 자동차가 멈추었다. 잠시간 길게 하리며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셨다. 노방전도 중 어느 한 사람이 나를 덥석 껴안고 수화로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며 우리를 자기 집으로 이끌었다. 그가 깨어 보여준 것은 2005년도에 누나가 주고 간 성경책이었다. 그 안에 한글로 쓰여진 "사랑방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글자를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이병순 집사)
- ✦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는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 실명된 사람 등 중환자를 뿐이었다. 이들이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이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한종미 집사)
- ✦ 순수하고 맑은 영혼들을 많이 만났다. 7살짜리 아이가 자기 동네의 집들을 일일이 안내해 줄 때에 감격의 눈물과 은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주영규 집사)
- ✦ 피로하고 힘든 가운데도 팀원들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였다. 둘째 날 축조전도를 하는데 어느 여자아이가 우리를 불렀다. 그곳에 있던 많은 아이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를 하였다. 그때 밤에 계신단 아주머니가 심장과 머리가 아프다며 기도를 부탁하였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였다. 우리 팀원들은 찬송가 529장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김순옥 집사)
- ✦ 숲을 마시는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어린 아이와 같은 표정으로 그들이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잠시 당황하였으나 우리말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이어 그들은 건너편에서 양을 치고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달라고 하였다. 또 휴대폰으로 친구를 불렀고, 잠시 뒤에 부인과 누나가 들어오자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 밤에 주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것이었다. (서규주 집사)



겸손과 순종

비포장 도로를 달려 농촌으로 사역을 나가니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막상 복음을 전하려 하자 모두 우리를 피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마한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첫날 사역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날 저녁 평가회 시간에 우리들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 두 분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며 영접기도를 한 뒤 전도지를 드리지 않으며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는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게 분명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한 할머니에게 같은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손을 펴며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겸손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다른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깨뜨려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사역에 임하였습니다. 복음이 뿌려진 곳곳마다 귀한 천국 백성들이 넘쳐나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정금수(인수집사, 24교구)

행복한 동행

첫날 사역지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누추하고 비참한 모습이 비단 그들의 모습 뿐 아니라 내 영혼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고, 소망없고 비참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했다. 내가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도 임하도록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로 찌든 이들의 문화와 사고 방식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씨가 날 수 있을지 염려도 되었다. 하지만 100년 전의 우리도 그들과 같은 상황이었으나 지금 이렇게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듯이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는다.

선교지 사람들이 겉으로는 순하고 착해 보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것을 깨닫기를 기도했다. 오직 복음 전파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절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팀원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소나기, 준비된 운전기사로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었고, 무엇보다도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사에 몇 번이나 탈락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역기간 동안은 주님과 함께 오직 전도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행복한 동행의 시간이었다.

김승욱(권사, 4교구)

현제 사역 중인 선교팀 (9개 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8월 6일(월) - 8월 15일(수)	11교구	김영록	8월 9일(목) - 8월 17일(금)	2·4·5·11 12·15교구 연합	허만선
8월 7일(화) - 8월 15일(수)	예비대부①	변창대	8월 9일(목) - 8월 17일(금)	할렐루야찬양대③	김종녀
8월 7일(화) - 8월 15일(수)	예비대부②	윤영범	8월 10일(금) - 8월 18일(토)	이흥기	
8월 8일(수) - 8월 16일(목)	7·1·17교구 대학부 연합	박석산	8월 10일(금) - 8월 18일(토)	할렐루야찬양대④	문경안
8월 9일(목) - 8월 16일(목)	4·2·6·11교구 청년부·청년2부 연합	문영규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3일(월) - 8월 21일(화)	22교구	윤상철

단기선교팀을 위한 선교 특별 새벽기도회

- 목적: 선교팀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안락으로부터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 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이 충만한 동행이 되도록 간구하기 위함.
- 대상: 선교위원회 일원 및 기도동역자, 모든 성도
- 파송선교팀: 56개 팀 (7.20. 파송-19개 팀 / 7.27. 파송-27개 팀 / 8.3. 파송-10개 팀)
- 기간: 7.23(월)-8.18(토), 4주간
- 일시: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전 5시 40분-6시(새벽기도회 후), 월요일은 단기교회 회의 및 기도회로 대체
- 장소: 베다니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23개 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7월 30일(월) - 8월 6일(월)	20·4·17·22·25·26·27·28·29·30·31교구 연합	김석하	8월 1일(수) - 8월 8일(수)	8교구·중동부 연합	윤복식
7월 30일(월) - 8월 7일(월)	14·2·15교구·타교 연합	이희우	8월 1일(수) - 8월 9일(목)	13교구	정호환
7월 30일(월) - 8월 7일(월)	21·20교구 연합	박명근	8월 1일(수) - 8월 9일(목)	18·19·20·21교구 타교 연합	윤해균
7월 30일(월) - 8월 7일(월)	22·20교구 연합	현준봉	8월 1일(수) - 8월 9일(목)	18·2·3·19교구 타교 연합	김성현
7월 30일(월) - 8월 7일(월)	시랑부 고사	박민호	8월 1일(수) - 8월 9일(목)	20·21·24교구 연합	박종훈
7월 30일(월) - 8월 7일(월)	2·10·12·21교구 대학부 연합	홍순길	8월 1일(수) - 8월 9일(목)	임마누엘 찬양대	임창식
7월 30일(월) - 8월 7일(월)	출향박지현	최상기	8월 2일(목) - 8월 10일(목)	14·15·18·24·27·28·29·30·31교구 연합	권오준
7월 30일(월) - 8월 7일(월)	23교구·타교 연합	유재훈	8월 3일(금) - 8월 10일(목)	10·2·11·12·20교구 대학부 연합	김동성
7월 31일(월) - 8월 7일(월)	초등부 고사	박광식	8월 3일(금) - 8월 11일(토)	15·20교구·2공부 대학부·청년부 연합	최민석
7월 31일(월) - 8월 8일(수)	5·6·14·23교구 연합	박천서	8월 3일(금) - 8월 11일(토)	22·20교구 연합	김성수
7월 31일(월) - 8월 8일(수)	청년2부 연합	김성호	8월 6일(토) - 8월 11일(토)	23·11·12·14·22교구 중동2부 연합	한홍연
7월 31일(월) - 8월 8일(수)	22·18·21교구 연합	김옥희			

성령은 이미 나의 마음에

교구 찬양 '매년 치러야 할 연례행사이거나.' 하는 마음으로 '그날 참석하여 연습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게다가 올해부터 금요일이 아닌 주일날 찬양예배 시간에 한다는 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왔다. 주일 교구모임과 금요일 찬양집회 시간 전에 모여 찬양을 연습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찬양을 준비할까?' 라는 의문이 생겼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의 마음속에 '나부터 순종하자!' 라는 믿음을 주셨다. 또 많은 인원과 아름다운 음색의 조화보다 우리의 마음과 순종하며 준비하는 모습을 주님은 더 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주셨다.

그 후부터 교구 찬양을 준비하는 나의 마음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겼다. 단일한 생각도 버렸다. 그저 한 마음으로 모셔온 온전히 성령께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교구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은혜롭던지...

주일 교구찬양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었다. '이 기회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이 찬양대석에 앉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다. 그리고 연신 감사의 고백이 넘쳤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은 다 내려 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니 정말로 그 다음은 주님께서 모두 책임지 주셨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주일 찬양예배 시에 입신한 성령은 이미 나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히 부어주셨다.

박순천(집사, 10교구)

주님의 선택

내 주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론 교회에 가지고 권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 선험 그들을 따라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들의 생활이 믿지 않는 내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고, 너무 광신적으로 기도원에 가는 모습도 싫었다. 그러던 차에 나보다 먼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한 형님의 권유로 충현교회에 같이 나오게 되었다.

새가족양육부에서 신앙의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흐리기만 하던 모든 것이 조금씩 분명해지기 시작하였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충현교회에 불러주시기를 알게 되었다. 특히 죄로 가득한 나의 삶을 깨달았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하며,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된 뒤로 내게 갈등이 생겼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이다. '노래방'을 운영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 하는지 깨닫고 나니, 세상의 노래만 듣고 소개하는 나의 직업이 영 타락할 없었다. 이런 나의 마음을 안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보았다. 마침내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다. 남편에게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였고, 그 직장에서도 나도 함께 일하게 된 것이다. 더 이상 나는 세상의 노래를 소개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을 소개할 것이다. "예수님! 내 입과 귀에서 찬양만 부르고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만을 소원했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박미경(성도, 새가족양육부)

발바닥 신자의 거듭남

주님은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지난 28년 전 나에게 믿음은 전혀 없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었다. 오늘 범죄하고 내일 회개하고 주일에 용서받길 간구하는 반복되는 생활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이기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항상 망설여졌다. 세례는 생각지도 못했고 시계주 같은 믿음이기에 '발바닥 신자'라는 말로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쉬울 때만 간구하고 매달리고 사랑받기 원해도 주님은 그럴 때마다 타닥하지 않으시고 나를 더욱 사랑해 주셨다.

세상 고락 속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문득 보잘 것 없어 보이던 십자가의 사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로 5:20)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죄로 가득한 나에게 소리를 내시며 다가오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1992년에 학업을 받고 8년이 지난 2000년 6월에 드디어 세례를 받았다. 교회만 갔다 갔다를 반복하는 발바닥 신자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참 신자로 주님은 나를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예배와 집회에 참석하고 교구모임에도 나가면서 주님의 말씀은 더욱 강하게 나를 사로잡았다. 2004년에는 선교도 다녀왔다. 사실 그 때 나의 모든 상황은 선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로 하여금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였고, 은혜 중에 선교를 다녀올 수 있게 하셨다. 정말 죄인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나는 "감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항상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도, 가까운 사람도, 심지어 주님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위선을 속속들이 아시는 예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돌이켜 그리스도의 십자가 결의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연평(집사, 7교구)

나는 그때 알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내 눈가는 언제나 촉촉해진다. 작년 이맘 때 충현교회에 등록하여, 올해 초부터 청년2부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 하였다. 처음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주시고, 지금의 청년2부로 이끌어주시 주님의 세심함과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다. 나는 서울 출생도 아니고 학교도 지방에서 다녔고, 2002년에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 취업을 하게 되었다. '친구 한 명 없는 서울 생활이 참으로 건조했고, 남들 다 가지는 친구가 없다는 생각이 세상을 잘못 산 건 아닌가?' 하며 꽤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후 새 친구를 사귀고 좋은 것들을 가져다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빈 자리가 있었다. 결혼을 하면 나아질 줄 알았으나 공허한 마음은 심해졌고, 눈물로 몇 년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중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충현교회에 등록을 하였다. 나는 그때 알았다. '그동안 나에게 무엇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첫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주님은 내가 복음에 짓기 전에 나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구별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감을 찾은 것 같았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은 나보다 몇 배배 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무엇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청년2부로 보내주셔서 많은 지체들과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동안 세상에서 마음 나눌 친구가 없다고 나 자신을 비관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한꺼번에 보내주시니 부자가 된 듯 싶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진다.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을 통해서 느낀다. 아직은 초신자여서 주님에 대해 궁금한 것과 알고 싶은 것들이 아주 많다. 하지만 서둘러서 없고 차근차근 하나씩!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는다.

이유성(성도, 청년2부)

2007년 하반기 장학생 명단

대학원생 (19명)

강은미	김광미	김명철	김성탁	김지희	김진희
김현우	나소영	문성욱	박유미	서해덕	윤지원
이병진	이성훈	장미선	정미애	정혜리	최윤경
황윤하					

대학생 (115명)

강 건	강문구	강재구	강지원	고혜진	고홍섭
곽현우	권도형	권동희	권아슬	김도현	김도홍
김동현	김민수	김보미	김선아	김선주	김소라
김신영	김신태	김예라	김영민	김영훈	김예진
김요한	김유립	김윤경A	김윤경B	김재현	김지선
김지원	김지운	김지혜	김진희	김찬미	김홍미
김희진	남주성	남지혜	동유창	문은희	박 준
박경훈	박미연	박상직	박경윤	박주영	박현아
박효선	백민지	백지연	손향아	신성철	
심왕섭	심재원	안지영	염세복	오민경	오민선
오찬양	왕현경	우경은	유미나	유지현	이다정
이동욱	이미숙	이민정	이보람	이봉호	이상희
이송미	이송이	이슬기	이주영	이주희	이지연
이지윤	이태윤	이태현	이한솔	이현주	이혜린
이훈희	임민섭	임유진	장기현	전지향	정승환
정일택	정지혜	정진성	정해진	조상미	조용민
조한규	조현국	지은미	차병철	천예나	천진경
최 웅	최시원	최안나	최재진	최현희	추수철
한영아	현슬기	형윤옥	홍경화	홍기숙	홍성은
황지현					

고등학생 (83명)

강부희	고영규	김나영	김남우	김다령	김다혜
김대혁	김민정	김서열	김성진	김성해	김소라
김연희	김영은	김용은	김유용	김윤영	김준호
김지수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하은	김현철
남기훈	마송이	맹한호	문상호	문영광	문정훈
민준하	박서정	박소현	박연경	박요섭	변재승
변해연	신예영	양성윤	양준섭	양관미	변예제
예지희	오다현	유한중	윤수정	이나현	이다영
이성진	이영찬	이은혜	이창현	이초한	이혜린
이효용	임성령	임지수	장성훈	장정하	장준호
장지혜	전서열	전숙현	전 승	정수민	정영욱
정찬영	정혜인	조수빈	조슬기	조현수	주재광
최민영	최예진	최은빈	최정우	최진영	추수환
한상현	한정훈	한태희	홍진호	황상철	

이상 217명

충현장학생 선발자 명성운권 (대학원생·대학생·선발자에 한함)

일 시 : 2007년 8월 17일(금) 금요찬양집회 후

장 소 : 베다니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

서머나교회 (요한계시록 2:8~11)

서머나는 예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6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의 옛날 지명이다.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로서 많은 돈이 밀려와서 '아시아의 보석'이라는 별칭이 사용되었다. 이곳에 설립된 서머나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추정해 보건대 바울이 예베소 전도 중에 예베소와 가까운 이곳을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행 19:1,10) 이 도시는 기독교사에서 그 유명한 폴리암이 순교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A.D. 70년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대거 이곳으로 이주해와 살았고, 이들은 로마 정부와 협잡하여 서머나교회를 심하게 압박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사단의 회" (계 2:9)라는 말씀을 하셨다.

서머나교회는 바로 이러한 불굴의 믿음, 곧 모진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기에 빌라델비아교회와 함께 주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였다. 서머나교회의 특징은 환난과 고난이 넘치는 공동체였다. 그러기에 그런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님은 "처음으로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8절) 죽음의 위협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주는 최고의 은총이 성도의 부활임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았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경에 나타난 서머나교회를 모델로 삼고자 한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충현의 성도들은 세상의 압박과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부활의 큰 소망을 가져야 한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성도는 현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결코 좋은 조건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자신 안에 부활의 소망이 얼마만큼 넘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길 원한다. 서머나교회와 있던 지역은 물질이 풍부한 지역이었지만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았기에 사탄의 꾀함으로 인해 환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이와 흡사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압박과 공멸함을 겪어야 함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현대에는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 떠는 성도들이 많다. 그러나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물질의 부요함만을 추구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엔 원수가 되게 되어 있음을 상기하길 원한다. (약 4:4)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부가 아니라 영적 부요함이 참된 것이며, 영원한 생명이어야말로 성도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길밖에 없음을 잊지 말자. 곧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9절)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길 바란다.

장 훈(목사, 4교구)



서머나 폴리암 기념교회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17	임주희	15	대학부	소지혜(18)	1326	여현주	13	청년1부	
1318	유옥자	17	청년3부	한관우(23)	1327	백효진	19	청년1부	김향자(19)
1319	여운이	7	소망부	이재일(12)	1328	강정혜	11	청년3부	
1320	정병선	19	청년1부		1329	임인철	21	청년1부	루시(25)
1321	임우성	19	청년1부		1330	최원조	23	청년2부	변성주(11)
1322	이수경	12	청년1부		1331	김희정	19	소망부	김춘자(19)
1323	김지혜	1	청년1부		1332	박영민	9	대학부	이승연(9)
1324	정준영	1	청년1부		1333	서선하	22	청년1부	노미소(19)
1325	정종운	2	청년1부		1334	고송우	3	유년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 차량감독